

# 재난문자 20주년, 지난 성과와 발전 방향을 말하다

- ‘재난문자방송 서비스 20주년 기념 전문가 토론회’ 개최(5.21.)

- 행정안전부는 5월 21일(수) 정부서울청사에서 ‘재난문자방송 서비스 20주년 기념 전문가 토론회’를 개최\*한다.
  - \* (참석) 행정안전부, 한국전자통신연구원, 한국행정연구원, 이동통신 3사, 민간 전문가 등
- ‘재난문자방송’ 서비스는 2005년 5월 15일 도입된 이후, 지난 20년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재난정보 전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.
- 지금까지 송출된 재난문자는 총 21만여 건에 달하며, 서비스 접근성과 효과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\*을 거듭해왔다.
  - \* ▲ 휴대폰 재난문자 수신기능 탑재 의무화(‘13.1.)
  - ▲ 재난문자 용량 확대에 따른 90자 표준문안 마련(‘19.5.)
  - ▲ 송출권한을 시·군·구로 확대(‘19.9.)
  - ▲ 송출지역을 읍·면·동 단위로 세분화(‘23.5.)
  - ▲ 위급·긴급재난문자 핵심정보 영문 병기(‘24.2.) 등
- 다만, 취약계층 전달 효과 제고, 중복·과다 발송에 따른 피로도 완화 등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.
-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성과와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.
- 행정안전부는 그간 정책 성과와 추진계획을 소개하고, 향후 재난정보 제공 체계 및 운영 방향을 공유한다.
-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제 기술을 비롯한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,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제언한다.

- 한국행정연구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재난문자방송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요구사항을 발표한다.
- 한편, 이날 행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년간 재난문자방송 서비스를 위해 이동통신망을 무상으로 지원해 온 이동통신 3개사(KT, SKT, LGU+)에 감사패를 수여한다.
-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협력해 온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.
-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“재난문자는 지난 20년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정보 전달 수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”라면서,
  - “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께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안전예방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	책임자	과 장	신승인 (044-205-5280)
		담당자	전문관	권구열 (044-205-5309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**

